

‘쏘울’ 해외시장 인기 생산량 98% 수출 ... 박스카 판매 1위

KIA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2014년 결산 <하>

교황의 차 ‘포프 모빌’ 선정 세계 이목 집중 최고성능 ‘쏘울EV’ 국내 친환경차 시장 재편

‘쏘울’은 2014년 기아차 광주공장의 마스코트가 됐다. 대표 수출 차종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 지난 4월 현대·기아차 친환경차의 핵심인 순수 전기차 ‘쏘울EV’가 출시되면서 북미시장과 국내외 친환경차 시장 공략의 날개를 달고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쏘울 62만대 증산효과 및 해외시장 인기=올 11월까지 기아차 광주공장의 쏘울 생산량은 총 19만8036대(내수 3344대·

수출 19만4692대)로, 지난해 전체 생산량(15만6831대)을 26.3%나 뛰어 넘었다. 아직 12월 생산량이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보다 4만대 가량을 더 생산한 것이다. 쏘울이 월 평균 2만대 가량 생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생산량 대비 올해는 6만대 가량 더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아차가 62만대 증산체제에서 쏘울의 생산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올해 쏘울 생산량 가운데 98.3%가 수출될 정



도로 해외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특히 수출물량 중 80% 이상이 북미시장에서 팔렸다. 쏘울은 미국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바탕으로 2009년 2월 출시 후 도요타 싸이언xB, 닛산 큐브 등 경쟁 박스카들을 압도하며 줄곧 박스카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다. 북미시장 판매대수를 보면 올 상반기 도요타 싸이언xB와 닛산 큐브의 판매대수는 8218대, 2294대에 머물러 쏘울의 11%, 3%에 불과했다. 쏘울은 출시 5년4개월 만인 지난 6월 현지판매 50만대를 넘어섰다.

도요타 싸이언xB가 2003년 출시 후 11년 동안 36만9042대 판매에 그친 것을 보면 쏘울의 판매량을 알 수 있다.

지난 8월엔 교황의 차인 ‘포프 모빌’로 선정되며 또 한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포프 모빌’ 효과에 힘입어 지난 9월 유럽시장에서 총 1627대가 판매돼 전달 745대 대비 118.4%나 급성장했다. 이 실적은 지난 2010년 3월 1880대가 판매된 이후 월간 판매로 54개월 만에 최대 실적이었다.

◇전기차 쏘울EV도 출시...국내 친환경차 시장 전환점 마련=지난 4월 기아차 광주공장서 출시된 전기차 쏘울EV는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쏘울EV는 현재 국내에서 출시된 국산 전기차 가운데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쏘울 EV는 1회 충전용을 통해 148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급속 충전

시 24~33분, 완속 충전시 4시간2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다. 특히 전기차용 히트펌프 시스템과 개별 공조(Individual ventilation), 차세대 회생 제동 시스템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첨단 기술을 적용해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향상시켰다.

기술력과 디자인에 힘입어 쏘울EV는 올해 광주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전기차 공모에서 모두 1등을 차지했다. 친환경차를 중시하는 해외시장에서도 호평을 받아 올 8월부터 미국과 영국에 선적을 개시했고, 9월부터는 노르웨이로 수출 길을 열었다. 그 결과 쏘울EV는 기아차의 노르웨이 진출 사상 최초로 ‘2015 노르웨이 올해의 차’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또 캐나다 시타카 차급에서 스마트 포투를 제치고 캐나다 올해의 차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차, ‘2015년형 K3’ 출시

타이어 공기압 경보시스템 적용

기아자동차가 지난 26일부터 ‘2015년형 K3’ 시판에 들어갔다. 새 모델은 전 등급에 타이어 공기압의 이상 여부를 알려주는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TPMS)을 기본 적용하는 등 고객요구를 반영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주력 판매 등급인 가솔린 프레스티지 트림의 경우 사양 조정을 통해 기존보다 28만원 가격을 인하했다.

또 2개 트림으로 운영되던 해치백 모델의 경우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단일화하고 사양과 가격 또한 세단 프레스티지 모델과



동일하게 구성해 고객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합리적으로 K3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은 자동변속기 기준 세단 가솔린 모델 1553만~1999만원, 디젤 모델 1940만~2195만원, 유로 모델 1895만원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조환익 한전사장, 빛가람시대 신년 화두는 ‘일신월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동지를 둔 한국전력공사가 다가오는 새해 화두로 ‘일신월이’(日新月異)를 내세웠다.

조환익 한전 사장(사진)은 28일 “한전은 117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100년 기업이지만 역사적인 분사이전과 더불어 빛가람 새 시대를 맞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각오로 ‘일신월이’를 신년 화두로 정했다”며 “2만여 임직원이 매일 매일 새롭게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빛가람 혁신도시를 세계적인 에너지밸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 역시 가장



스마트하고 깨끗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첫 해인 지난해 조 사장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을 화두로,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고 구성원간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바 있다. 올해엔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한다’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을 화두로 6년 만에 혁신전환의 원년을 달성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양 모형 크리스탈 장식품

28일 올미년 ‘양의 해’를 맞아 광주 지역 한 백화점 주얼리 매장에 양 모형의 황금빛 크리스탈 장식품이 선보였다. 양 모형의 이 크리스탈 장식품은 45만7000원에 한정 판매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전남 개인회생 신청을 4500명 넘을 듯

가계부채 증가 주원인 ... 전국 10만건 넘어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전남 지역 역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우스푸어 등 대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으로 내몰리는 한계계층도 증가해 서민경제 파탄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금융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광주·전남의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421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64건(1.5%) 가량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09년 3869명에서 2010년 2821명으로 줄었다가 2011년 3359명, 2012년 4077명으로 빠르게 늘어 지난해(4559명)는 사상 처음으로 4500명을 넘어섰으며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의 확대와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저소득층은 행권보다 대출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으로 점차 밀려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득 1분위 중 올 들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가구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반면, 비은행권 융기관과 보험사, 기타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 가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1~11월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전국적으로 10만1728건으로 작년 동기(9만6412건)보다 5.5% 늘었다. 이로써 올해는 작년 이어 역대 2번째로 개인회생 신청이 10만건을 넘은 해가 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호고속, 운전승무사원 모집

금호고속이 다음달 2일까지 버스 운전 승무사원을 모집한다.

1종 대형면허를 3년 이상 소지하고 버스 운전자격(교통안전공단)을 취득해야 하며 버스운전 무사고 2년 이상 경력도 있어야 한다. 응시원서는 금호고속 홈페이지(www.kumhobuslines.c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서류는 유·스퀘어 금호고속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문의(062-360-8105). /임동률기자 exian@

로또복권 (제630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8	17 21 24 27 31	15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4,836,305,500	3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0,378,183	48
3	5개 숫자일치	1,482,620	1,631
4	4개 숫자일치	50,000	84,380
5	3개 숫자일치	5,000	1,420,745

전원 주택지 매매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
- 328평, 33가구중 1
- 택지조성 공사중
2015년 5월 완공 예정
- 조성 후 평당 80만원 예상
- 매매가 1억 312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빌라 3층 34평 매매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광천 파크 빌라 3층 304호
- 2013년 준공, 5층중 3층, 전남향
- 시세 및 감정가 1억 9천만원
- 매매가 1억 7천만원(일시불)
- 즉시 입주, 내부 깨끗함

주인직매 H. 010-3180-8900

특수경매 배우면서 단독·공동 투자 하실 분!



경매 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분사 결정
- ▶ 낙찰물건에 투자하실 분!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 오천경매 H.010-3605-5000